

광주·전남 ‘투표·득표율 90%’ …민주당 목표 실현될까

지역 득표율 1위 후보자
역대 대선서 세 차례 당선
직전엔 ‘0.73%p’ 석패 빌미
6·3 장미 대선 성적표 주목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치러진 8차례 대선에서 ‘광주·전남 득표율 1위’ 후보가 당선된 것은 모두 3차례다. 광주·전남 입장에서 보면 대선 성적표가 ‘8전 3승 5패’ 인 셈이다. 이에 6·3 장미대선 결과로 광주·전남의 대선 성적표가 어떻게 기록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편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실시된 역대 대선(13대~20대)에서 광주·전남 득표율 1위 후보의 당선은 모두 3차례다. 나머지 5차례는 시·도 민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광주·전남 득표율 1위를 기록한 15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16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19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선 기쁨을 누렸다.

이들의 득표율을 보면 김 전 대통령은 광주 97.28%, 전남 94.61%, 노 전 대통령은 광주 95.17%, 전남 93.38%, 문 전 대통령은 광주 61.14%, 전남 59.87%다.

19대 대선은 당시 광주·전남 현역의원 17명이 소속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존재해 문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전 당선자들에 비해 낮았다.

이 같은 득표율을 근거로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는 6월 21대 대선 목표를 ‘투표율 90%, 득표율 90%’로 정했다. 광주·전남에서 득표율 90% 이상을 올려야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에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나선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광주·전남 득표율 목표를 90%로 정했으나, 광주 84.82% 전남 86.10%에 그쳤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광주 후보단장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과 전남 후보단장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지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당력을 총동원하고 득표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0.73%p’란 박빙의 차로 정권을 내줬다.

광주·전남에선 득표율이 낮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은 모두 보수계열 정당 후보였다.

13대 노태우 민주자유당(광주 4.81%, 전남 8.16%), 14대 김영삼 민주자유당(광주 2.13%, 전남 4.20%), 17대 이명박 한나라당(광주 8.59%, 전남 9.22%), 18대 박근혜 새누리당(광주 7.76%, 전남 10.00%), 직전 20대 윤석열



“투표 하세요” 홍보 포스터 점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8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참여 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국민의힘(광주 12.72%, 전남 11.44%) 후보 등이다.

득표율 추이를 보면 보수정당 후보들의 광주·전남 민심에 한 발 한 발 접근하고 있다. 17대 대선까지 한 자릿수에 그쳤던 보수정당 후보 득표

율은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남에서 10.00%로 두 자릿수를 얻었다. 20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광주·전남에서 보수정당 후보 최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

지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장미 대선에서 시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광주·전남지역 최대 80mm ‘비’ …강풍 특보도

밤·낮 기온차 15도 내외

9일 광주·전남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에 10~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 남부에는 20~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5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 가량 되겠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9일 오전 6시 전남지역(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임박…2026년 개교

교육부 심사 막바지 단계
유사학과 통폐합 경쟁력 ↑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내년 새롭게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회는 최근 목포대에서 현장실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6차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두 대학은 내년 3월 통합대학교 개교를 목표

로 추진 중이며, 정원 배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통합이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지난해 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에 합의했다. 글로벌 대학에 도전했던 목포대는 전남도립대와 통합으로 기능·기술인력 양성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12월 두 대학은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25일에는 양 대학 총장, 교수들이 학과 조정을 논의했다.

이후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목포대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교육부의 통합 심사를 통과하면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국립목포대로 통합된다.

통합대학교의 명칭은 국립목포대로 하고, 도립대는 목포대 담양 캠퍼스와 목포대 장흥 캠퍼스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도립대는 15개 학과에서 13개 학과로 조정되고, 목포대는 61개 학과를 유지한다.

문화크리에이터 전공과 스마트해양시스템 전공, 자율전공학과 등 3개과는 신설되고 드론기계학과와 AI드론학과는 항공드론융합전공으로 통합된다. ▶2면에 계속 정근산 기자

내일의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제15회 세계인권도시포럼
5.15.(목)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민주평화대행진
5.17.(토) 16:00
광주고등학교

5·18전야제
5.17.(토) 18:00
금남로 일대

5·18기념식
5.18.(일) 10:00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인권상 시상식
5.18.(일) 19:00
5·18민주광장

2025년 광주의 오월은 어느 해보다 특별합니다.

5·18 정신과 함께 걷고 타고 먹고 쉬면서
광주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지하철·버스 무료
(17~18일)

오월 텐트촌 운영
(17일 밤)

소년의 길 투어

주먹밥·빵 나눔

5·18민주묘지 추모탑

두 손으로 '난형환조(희생 당한 신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부활을 상징)'를 감싸고 있는 형상을 표현